

# 아베, '전쟁 가능한 일본' 길 텠다

## 일본 7·10 참의원 선거서 개헌 발의 165석 확보 '군국주의화 견제' 한·중 주변국들과 긴장 조성 우려

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필두로 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급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이동하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 등 개헌파와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 간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수시로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재 평화헌법 9조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전쟁 가능국가'로 가는 길을 트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엔 선거

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헌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섰다.

개별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에 1석 못 미치는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이룬 선거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애초 입후보한 명단에 의하면 55석이지만 무소속 당선자 1명을 추가 공천 형식으로 받아 들었다.

이로써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당초 목표한 합계 61석(이번 선거 대상 의석수의 과반)을 훌쩍 넘긴 70석을 획득하며 참의원에서 안정 과반인 146석(전체의 약 60%)을 보유하게 됐다.

또 민주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은 각 1석, 무소속은 4석을 확



보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우선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의 경우 찬반론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표 진행 중에 현지 TV와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권 자민당 개헌안 초안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일단은 긴급사태 조항 등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책사 가후

가후(147~223)는 위나라의 정치인으로 자는 문화이며 양주 무위군 고장현 출신이다. 조조가 삼국시대 최고의 실력자가 되도록 보좌했다.

그는 일찍이 효렴으로 천거되어 낭이 되었다. 동탁이 헌제를 옹립하고 조정을 좌우할 때 토로교위로 지위가 올라갔다. 동탁 사후 이각, 곽사 진영에 있다가 남양 태수 장수 휘하로 들어갔다. 장수와 조조는 서로 싸웠는데 그의 의견을 따를 때에는 장수가 승리했고 계락을 채택하지 않으면 패배해곤 했다.

원소와 조조는 중원의 패권을 놓고 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유주·병주 등 4주를 장악한 원소의 세력이 훨씬 강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장수에게 조조측에 속할 것을 권하였다. "조조는 천자를 받들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으니 그를 따라야 할 첫째 이유다. 조조의 군

침성은 물어뜯는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이 둘을 이간시키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조 말년 아들 조비와 조식이 후계를 놓고 다투었다. 문제가 튀어나고 성품이 온화한 조식에 대한 조조의 사랑이 깊었다. 장남 조비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묘책을 몰았다. 그는 "장군은 인덕과 관용을 발휘하고 승상하며 아들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된다"고 건의했다. 조조가 후계 문제를 물어보았으나 묵묵부답했다. 이 유를 문자 "원소와 유표 부자를 생각 하시고 있다"고 답했다. 조조는 뜻을 헤아리고 조비를 태자로 정했다. 원소 사후 세 아들이 다투는 바람에 집안이 멸망했고, 유표 집안도 장남 유키와 차남 유훈이 대립해 형주를 빼앗긴 교훈을 조조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비가 즉위하자 태위가 되었고 위수향후로 봉해졌다. 조비는 오나라와

## 미국 이어 캐나다에서도

### 중국인 원정출산 금지 캠페인

### 佛 라디오 방송 RFI 보도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중국인의 원정출산을 금지하려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프랑스 국영 라디오 방송 RFI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캐나다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캐나다 국적을 부여하는 법을 폐기하자는 캠페인이 호응을 얻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자가 많은 캐나다 밴쿠버 시민 캐리 스타척이 지난달 16일 캐나다 의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청원을 올린 지 3주 만에 서명자가 13주에서 3천842명에 달했다. 화교 출신 황천소(黃陳小萍) 의원도 이 청원을 지지하고 나서 캠페인은 힘을 얻고 있다.

스타척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서명을 받은 후 해당 청원서를 의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청원서는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을 하면 캐나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신생아는 캐나다에서 의료와 사회복지, 그리고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이후 그의 부모도 캐나다 시민권 획득이 용이해져 의료비 면제, 퇴직보형, 생활 보장 등의 '공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흑인사살 항의 시위하는 美 주민들**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주거지역에서 10일(현지시간) 주민들이 경찰의 흑인 사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이날 배턴루지 도심지역에서 조직적인 집회를 가진 후 주거지역과 고속도로 등으로 진출했다. 진압에 나선 경찰은 시위대에 해산을 명령하고 거부하는 경우 체포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격랑속으로

### 판결 하루 앞두고 中 무력시위 이어 등대 가동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정의 판결을 하루 앞둔 남중국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가의 반발에도 분쟁 해역에서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대규모 무력시위를 하고 인공섬에 등대를 가동하는 등 영유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쟁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선박

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일도 발생해 남중국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쩡영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에 점유하고 있는 4개 인공섬에 등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환구시보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전날 닝보(寧波)에

서 '중국 항해의 날' 기념포럼을 열고 현재 스프래틀리군도에 건설중인 5개 등대 중 4개가 이미 완공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등대가 가동되고 있는 곳은 피어리크로스 암초(웅수자오, 궤테론 암초(화양자오), 존슨 사우스 암초(초과자오, 수비 암초(주비자오) 4곳이다.

11일은 중국이 명나라 정화(鄭和)의 남해 원정 600주년을 기념해 2005년 제정한 중국 항해의 날로 중국은 작년부터 남보에서 이를 기념한 포럼을 열고 있다.

## 탁월한 혜안·책략 ... 조조 최고의 책사

대는 약소하므로 우리들을 얻으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니 두 번째 이유다. 무릇 패왕의 뜻을 품은 자는 진실로 사사로운 원한을 없애으로써 천하에 덕을 밝히니 세 번째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조조는 그의 손을 잡고 "나의 신의가 천하에 중히 여겨지게 된 것은 당신때문이다"라고 치하했다.

그는 관도대전을 승리로 이끌도록 여러 계책을 내 놓았다. "조공은 현명함, 용맹, 용인술, 싸움에 능해서 시기를 결정하는데서 원소보다 낫다"며 결전을 앞두고 주저하는 조조에게 과감한 승부수를 권했다. 관도대전의 승리로 조조는 천하의 절반을 차지했다.

208년 형주를 점령한 조조는 남하해 유티와 손권을 무찌르려 하였다. 그는 "조공은 원소를 쳐부셨고 형주를 정복했다. 위세와 명성이 멀리까지 떨치고 권세가 강해졌다. 군대를 수고롭게 하지 않더라도 손권은 머리를 조아리며 승복할 것이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의 의견을 물리치고 적벽대전을 일으켰으나 오의 화공전에 말려 대패했다. 탁월한 혜안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서양에서 마초와 한수와의 싸움에서는 둘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계책으로 승리했다. 그는 궁지에 몰린 마초가 휴전을 제의해 오면 "거짓으로 허락"할 것을 건의했다. "궁지에 몰린

축나라 중 어느 쪽을 먼저 토벌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유비나 손권에 대적할만한 사람은 없다. 폐하께서 하늘의 위세를 입고 황제가 되었으나 완전히 승리를 거둔 형세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며 출병을 반대했다. 조비는 그의 반대에도 몇 차례 거뻐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의 지모는 전한 초의 장량과 진평에 비견될 수 있다. 장량은 장막 안에서 작전계획을 세워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짓는 참모였다. 진평은 유방에게 여섯 차례 기책을 건의해 사지에서 구한 재사였다. 그는 정세와 인물을 두루 살펴 계책을 내놓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위기 국면에서 임기응변의 재능을 보여주었다. 서량의 저족 반군을 만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교묘한 처신으로 궁지를 벗어났다. 또한 뛰어난 처세술로 천수를 누렸다. 사교 생활을 멀리했지만 그의 지혜를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순숙, 최영, 공용, 양수 등이 한결같이 주살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반면 77세까지 장수했고 사후 속후로 봉해졌다. 삼국지 저자 진수는 "그는 책략에 실수가 없고 사태 변화를 꿰뚫고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원주택지

-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  
대지 328평, 33세대중 1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2016년 8월말 완공 예정  
매매 - 1억 6천만원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 전원주택지

-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문화마을, 128평, 코너  
계획관리지역, 위치 좋음  
36세대중 20세대 거주  
매매 - 83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 무인텔

###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콘도겸용)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장기투자 최적!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5억 정도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